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절 후 제9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15:1-5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44장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42번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오직 주께만 있사오니,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허락하신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주님 오시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하루의 귀중함과 가치를 깨닫게 하셔서 주어진 시간 동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몸과 맘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사무엘상 15:17-23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

봉 헌(offering) 6장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Hymn) 377장 다함께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성도 간의 기도와 교제(전화, 카톡)를 통해 보이지 않는 믿음의 끈이 연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우소식
 - 박선미성도님(박준영·윤병옥권사님 따님)께서 오늘 집이 있는 캘리포니아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 김희원권사님과 이춘희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 미국에 회개와 부흥을 통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 사회 전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묵상〉 사무엘상 15:17-23

17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18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20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21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22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1. 사무엘이 사울 왕의 불순종을 말할 때 그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7-21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과 내가 생각하는 순종의 차이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2.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제사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22-23절) 나는 지금까지 불순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의미는 그분을 경외함으로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을 통해 검증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종을 감당하기 힘든 버거운 짐을 지는 듯한 생각을 지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내 안에 남아 있는 스스로 왕 되고자 하는 거역의 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위험은 단순한 행위만이 아닌 그 행위에 숨겨져 있는 반역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죄입니다. 순종은 그런 자아를 쳐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행위이며,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가 됩니다. 나는 지금 순종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며 하나님과 맞서고 있는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까?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